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9권 2호. pp. 37~58, 1999.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9 No2, pp 37~58, 1999.
University of Ulsan

탈현실주의적 입장의 이론적 도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주홍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전공

<요 약>

국제관계학의 주류이론인 신현실주의는 탈냉전을 전후하여 다양한 이론적 계보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단위의 민주화와 국제평화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는 신칸트주의학파와 국제무정부 하의 협력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협력론에 의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타당성은 의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도전의 흐름을 구성하는 이론적 구조는 단위와 체제의 문제, 구조와 변화의 문제, 공동체와 정체성의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모두는 신현실주의의 핵심적 주장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주류이론의 해체를 도모하는 이론들이다. 그러나 신칸트학파의 주장은 단지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에 입각한 추론에 지나지 않으며, 상호의존의 경우도 그것이 민감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단위의 변화에 의한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충분한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논의의 경우 아직은 규범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타당성을 제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신국제주의의 논의가 활발해진 시점에서도 국가들의 보편주의에 입각한 국가행동이 국가이기주의를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국제무정부와 주권이 포기되기에는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Post-Realist Theoretical Challenges to Neo-realist International Theory: A Critique

Kim, Joohong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bstract>

Neo-realism, the mainstream international theory, has been confronted with various challenges from genealogically different kinds of theoretical positions since mid-1980's and more concretel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especially among which Neo-Kantian school and neo-liberal institutionalists have been outstanding in limiting the theoretical feasibility of neo-realism: the former stresses correlations between democratization and international peace; and the latter try to prov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under international anarchy. Anyways, these theoretical challenges are succinctly summarized in three categories of problematique: unit and system; structure and change; and community and identity. All of these are aiming at negation of neo-realism's theoretical core and de-construction of the mainstream international theory. But they are lack of logical foundation to explain that systematic change could be caused by unit-level changes, because Neo-Kantian argument is only a reasoning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major war among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and interdependence increases sensitivity and vulnerability simultaneously. Newly raised arguments on identity are important in that the factors left out of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ut they are not sufficiently capable of limiting the theoretical feasibility of neo-realism. It is because they remain only at the normative stage. Even at the time when neo-internationalism attracts humanitarian attention of many civilized countries, the claims on states' action based on universal value hide each nation's egoistic calcualtion. It will take a very long time to renounce international anarchy and state sovereignty as the core concept of international theory.

I. 서 론

신현실주의(Neo-realism) 국제관계이론은 현실주의의 환원론적 방법론(reductionism)의 한계를 체제론적 방법론(systemic approach)으로 극복하고, 마침 극도의 양극화로 치닫는 국제관계의 현실에 편승하여 국제정치이론 또는 국제관계이론의 주류이론으로서 한세대를 풍미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면서 신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실효성있는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 방법론적 세련화를 거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institutionalism)가 신현실주의의 주류이론적 지위를 제약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탈냉전과 사회주의권 몰락을 의미하는 주단혁명(velvet revolution)은 이를 예측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데에 실패한 국제관계학 주류이론의 정당성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입장의 탈현실주의적 입장들(Post-realistic positions)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탈현실주의적 입장들의 이론적 계보와 핵심적 논점의 타당성 및 이론적 한계를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탈현실주의적 입장이 국제관계학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것들이 단순히 현실주의나 신현실주의라는 이론적 사조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이, 베스트팔리아 체제 성립 이래 '근대'(modernity)의 국제적 표현인 국가, 국경, 주권, 정체성(identity), 정당성(legitimacy), 국가이익, 국가안보, 국민경제 등 기존의 국제관계학에서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에 수정을 가하고, 나아가 국제사회, 국제공동체, 세계화, 지구경제, 인류적 정체성과 가치, 공동안보 등 새로운 구성개념을 요구하며, 또한 방법론적으로 실증주의적인 입장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강화하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탈현실주의적 입장들의 주장을 개보론적으로 정리하고, 각 계보의 논점을 추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국제관계이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며 학문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간히 현실주의나 신현실주의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그것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다만 하영선(1992), 신욱희(1998), 김영호(1997) 등의 연구는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분야와 약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도 이미 구미에서 연구된 것들에 대한 소개 내지 요약에 그치고 있다. 이론의 핵심인 비판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사상되고 있는 것이다.

국외에서는 탈냉전 이후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단위와 체제에 대한 도일(Doyle, 1986), 로즈크랜스(Rosecrance, 1986), 후쿠야마(Fukuyama, 1992), 뮤엘러(Mueller, 1989), 콕스(Cox, 1989), 저비스(Jervis, 1988) 등의 논의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있으며, 구조와 변화에 있어서 애슐리(Ashley, 1984), 웬트(Wendt, 1992), 린크레이터(Linklater, 1990) 등의 논문도 이 분야에서 수작으로 꼽힌다. 또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비판이론의 전통에 서있는 애슐리(Ashley, 1981), 그리고 사해동포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펴는 린크레이터(Linklater, 1990b), 문화의 특성을 강조하는 워커(Walker, 1988, 1993), 그리고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는 오닐(O'Neill, 1989) 등도 필독해야 할 업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업적들은 그 학자들이 속한 국가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맹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해체하여 한국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만일 때를 놓친다면, 과거 50년간의 학문적 식민지가 계속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연구하게 된 이 논문에서는,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차이점과 양극체제 및 국제관계의 안정성 문제 등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구조를 살펴보고,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타당성의 한계에 대한 논의들을 고찰한 이후, 단위와 체제의 문제·구조와 변화의 문제·공동체와 정체성의 문제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탈현실주의적 입장들의 이론적 구조를 검토하고, 그 각각에 대한 타당성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는 방법론적으로 계보론적 접근법(genealogical approach)과 비교론적 접근법(theoretical-comparative approach)이 유용하며,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은 효용이 제약되게 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탈근대적 접근법(post-modern approach)을 방법론적으로 원용하여 인식론(epistemology), 존재론(ontology), 목적론(teleology)에 있어서의 이론적 구조를 해체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통하여 탈현실주의 입장들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였다.

II. 현실주의적 입장의 이론체계

1. 체제론적 접근법: 단위와 구조

탈현실주의적 입장의 이론적 도전은 주로 소위 '신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신현실주의도 현실주의의 연장선 상에서 이론적 구성이 출발한다는 점에서 탈현실주의적 입장은 현실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다만 현실주의가 풍미하던 시기에는 이론적 대안이 정치적 이상주의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정치적 이상주의가 지향하던 이론적 토대가 탈현실주의적 입장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1980년대 이후 제기된 탈현실주의적 입장들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신현실주의의 대부격인 월츠(Waltz)는 인간본성에서 최선을 개발함으로써 또는 정당성 있는 국내정치체계를 만듦으로써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그는 *Man, the State and War*(1959)에서 국제체제의 속성 상 정당성 있는 정권이 만들어지면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희망은 좌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1979)에서는 체제가 주권적 부분, 즉 국가를 이해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는 환원론적 믿음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무정부적 체제가 지배적인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월츠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들이 그 다양한 정치체제와 대조적인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이유는 환원론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신현실주의 이론은 그 문제를 체제의 제약이 국가와 그 외교정책행위 사이에 게재된다고 가정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말하자면 신현실주의는 이러한 체제의 힘이 국가들의 외교정책행위에서 보여지는 유사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환원론은 국제관계에 관한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저술들의 토대가 되지만, 월츠에 의하면 현실주의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종종 범한다는 것이다. 즉 고전적 현실주의는 무정부에 내재된 제약을 이해했지만, 그 구조에 대한 진지한 설명을 발전시키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월츠가 비판한 현실주의의 환원론은 홉스(Thomas Hobbes)의 인성론에서 유래되는 고전적 현실주의의 유추, 즉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악하며 따라서 그들로 구성된 국가 또한 이기적이며 악할 수 밖에 없다는 류의 국제정치해석으로서, 모든 국제관계를 국가의 행위로 환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월츠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방식은 카(E. H. Carr), 니버(Reinhold Niebuhr), 모겐소(Hans J. Morgenthau), 아롱(Raymond Aron) 등의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에게 계승되었다. 현실주의자들은 세계정치를 지배하는 힘은 국가의 외교정책에 그 단서가 있다는 믿음에서, 바로 그 외교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입장을 예시하면서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국제정치영역은 다양한 경제적·정치적·이념적 힘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이론화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Waltz, 1990, p. 25). 현실주의의 실수는 국제체제와 주권적 단위의 본질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지울 수 없다고 가정한 것이었다.

월츠는 경제·정치·문화가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제관계이론이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제체제를 분리해 냄으로써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체제를 분리하는 데에 실패하여, 아롱과 같은 현실주의들은 외교정책에 관한 조야한 일반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에 그쳤던 것이다(Waltz, 1990, p. 33). 신현실주의는 국제관계이

론과 외교정책이론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현실주의를 넘어서는 신현실주의의 진보란 국제체제를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정치에서의 추동력을 제대로 밝혀냈다는 것이 월츠의 주장이다(Waltz, 1990, pp. 22-31).[1] 서로 다른 민족국가들의 획일적인 행위와 수세기에 걸친 국제정치적 삶의 불변성을 설명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현실주의는 현실주의에서 중요한 많은 요소들을 사상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우연한 것, 임시적인 것, 그리고 예측되지 않은 것에 하나같이 굴복하였는데, 신현실주의는 이에 집착하기를 거부한다(Waltz, 1979, pp. 5, 8).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서의 '규칙성 및 반복성'은 저변의 구조적 제약의 작동에 대한 단서라고 주장한다. 현실주의를 넘어서는 신현실주의의 가장 커다란 진보는 국제정치를 '분명하게 규정된 구조를 가진 체제로' 개념화하는(Waltz, 1990, pp. 29-30) 결정이라고 주장된다.

몇몇 분석가들에 의하면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사이의 계속성은 파열과 단절보다 더 두드러진다(Gilpin, 1984; Little, 1985). 그들은 강조점의 차이를 역설한다는 점에서 옳다. 그들은 신현실주의는 외교정책의 획일성과 무정부체제의 장기적 재생산을 강조하지만, 현실주의도 또한 이러한 주제를 강조하며, 월츠와 모겐소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차이점들은 존재한다.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과학철학에서의 발전과, 고전적 현실주의에는 없는 구조주의적 방식의 사회과학적 설명을 흉내내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방법론적 엄밀함을 추구하는 것은, 국제체제의 주된 구조적 특징을 찾아내는 신현실주의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월츠에게 있어서, 국제체제의 구조가 국내정치체제의 구조와 구분되는 것은 체제의 구성원칙, 단위의 성격, 단위 능력의 배분이라는 세가지 기준에 의해서이다. 국내정치체제에서 구성원칙은 위계(hierarchy)지만 국제체제에서 작동원칙은 무정부(anarchy)이다. 위계적 국내체제에서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존재하며 개인은 복잡한 사회적 분업 안에서 자유롭게 전문화되지만, 무정부적 체제에서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없어서 기초단위들은 기능적 유사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무정부적 영역에서 국가들이 불평등한 능력을 가지고 꼭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반하여, 위계적 질서 안에서 개인은 기능적으로 상이하고, 또한 불평등한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Waltz, 1979, p. 104).

국제관계의 구성원칙은 수세기 동안 여전히 변치않고 있으며, 국가들은 무정부에 내재된 안보딜레마[2]에 직면할 경우 자조(self-help)의 원칙에 의존해 왔다(Waltz, 1979, pp. 187-8). 국제관계의 구조가 순응성이 있다고 믿었던 구 소련과 같은 국가들은 그 틀을 깨는 데에 실패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통합의 수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무정부의 맥락에서 각 국가는 타국에 대한 종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각국은 상호의존의 경제적 이득에서 보다 적은 몫을 받을까봐 걱정한다(Waltz, 1979, pp. 105-6; Grieco, 1988).[3] 국제관계의 구성원칙으로 인하여 국가들은 비슷한 단위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Waltz, 1979, p. 93).

---

1) 월츠는 이러한 신현실주의의 공적을 마치 중농주의자들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킨 것과도 같은 중요한 업적이라고 주장한다.

2) 안보딜레마란 일국이 자국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군비를 증강을 통하여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되면, 상대국이 이에 위협을 느껴 군비를 더욱 강화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국의 안보가 다시 위태로워지는 딜레마를 의미한다(Herz, 1950, p. 157)

3) 이 문제는 신현실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에 관한 것이다.

신현실주의는 계속성을 강조하지만, 변화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군사적 힘의 윤곽에 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국제체제 내의 변화는 발생해 오고 있지만, 그 조직원칙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임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였다(Waltz, 1979, p. 100). 무정부가 어떤 미래의 시점에 위계로 바뀔 수도 있지만, 월츠는 무정부의 조건과 결과를 변형시키기에 충분히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논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비록 세력균형에 있어서 변화가 계속 발생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군사력 배치의 재조정이라도 국제관계의 기본적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그 주권적 부분의 행위를 급진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현실주의에 있어서 현재의 전지구적 세력균형 재구성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2. 양극체제의 안정성: 양극체제와 다극체제

전지구적 균형의 문제는 핵시대에 있어서 양극화된 국제체제와 그 안정성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월츠는 핵시대에 양극성이 다극성보다 덜 안정적이라는 재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양극적 세계는 특별한 안정성이 있는 세계였다고 주장한다(Waltz, 1988, p. 620). 초강대국 지위획득에 대한 장애가 그다지 극복 불가능하지 않으며 계속되는 소련의 생존이 확실한 것 같았기 때문에, 월츠는 양극체제는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Waltz, 1979, p. 95, p. 183).

양극체제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안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되었듯이 월츠는 세력균형의 붕괴가 국제체제를 변형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측은 '일단 달성된 균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은 일단 무너지면 다른 방식으로 회복된다'는 것이다(Waltz, 1979, p. 128). 소련의 붕괴 이후 존 미어샤이머(Mearsheimer, 1990)와 같은 신현실주의자들은 양극성 종식이 축하할 일이 아니라 걱정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해 왔다.

현실주의자들은 양극세계가 그것이 대체했던 다극세계보다 더 안정적이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네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양극세계는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 없었는데, 이는 그들의 안보와 생존에 대한 주된 위협이 뚜렷이 두드러져 보였기 때문이다. 외교정책에서의 신중함과 과도한 반응의 위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오랜동안의 평화(Gaddis, 1987)[4]에 토대가 되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다극시대에는 위험이 훨씬 덜 특정적이며, 책임이 혼돈되고, 사활적 이익의 정의가 불분명하였다(Waltz, 1964, pp. 881-90). 부수적인 위험은, 국가가 그 경쟁국의 힘을 오판하거나 그들의 결의의 정확한 강도를 과소평가하여 결국 대규모전쟁으로 빠지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다(Mearsheimer, 1990, p. 14).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달성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다극체제에서는 모호성이 만연한다(*Ibid.*, p. 17).

둘째, 위기가 초강대국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였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평화는 양극성 하나에만 의존해 오지는 않았다. 두 초강대국들이 재래식 무기로 무장했었더라면, 그들은 군사적 성공이 가능한 때면 언제나 그들의 주적을 공격하려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핵무기는 양극화된 세계에서 안정성의 핵심적 원천이었는데, 이는 어떤 초강대국도 승리가 가

4) 가디스의 경우도 오랜 평화를 동서 양진영 간의 선쟁부재라는 의미에서 양극체제라는 구조적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Gaddis(1987), 제8장 참조.

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던가 또는 편안하게 군사적 패배의 결과가 견딜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던가 하는 일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Waltz, 1988, pp. 624-7; Mearsheimer, 1990, pp. 19-20). 월츠는, 다른 사회로의 동세된 핵무기 확산이 동등하게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핵확산이 경원시되기보다는 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Waltz, 1981, p. 30).[5] 미어샤이머는 탈냉전세계에서 핵무기의 '제한되고 관리된 확산'과 독일의 핵국가 대열 진입허용은, 비록 미래가 과거보다 더 위험할지라도, 유럽에서의 안정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990, p. 8).[6]

세째, 대체로 동등한 힘을 가지 군사동맹이 존재함으로써 다극체제에서는 오판의 위험이 커진다. 다극적 체제에서는, 어떤 한 국가의 배신이 즉각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현대의 양극화된 세계에서, 자기편 국가들이 불평등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초강대국들이 배신행위에 의하여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초강대국들은 동맹국들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중심적인 전략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다(Mearsheimer, 1990, p. 14).

넷째, 다극체제의 특징인 의존의 상호성으로 인하여 각국은 타국을 의심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Waltz, 1979, p. 209). 상호의존이 높으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국가들이 갈등으로 빠질 수 있다(Mearsheimer, 1990, p. 45). 세2차세개대전 이래 여느 때와 다른 경제적 자족의 수준으로 인하여 초강대국들 간의 전쟁가능성은 감소되었다(Waltz, 1979, pp. 138-144).

미어샤이머가 지난 45년의 안정성이 다음 수십년 동안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Mearsheimer, 1990, p. 56)이 옳다면, 신현실주의는 국제관계의 장기추세 분석에 여전히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위와 체제의 관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현실주의는 군사적 경쟁이 두드러지는 주변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보다 핵심적 산업국가들 간의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에 덜 유용하다고 주장되어 왔다(Goldgeier and McFaul, 1992). 이것이 맞다면, 산업화된 핵심지역의 국가들은 신현실주의가 무정부의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간주하는 체제적 논리(the systemic logic)를 거부할 수 있다. 리처드 로즈크랜스(Richard Rosecrance, 1986)는, 새로운 강대국 협력체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안정이 결과될 수 있지만, 그들이 국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사상을 강하게 수용하면 전도가 순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7]

월츠는 단위와 체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양극세계에서는 '국제체제가 단위를 지배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반면 다극체제에서는 국가가

---

5) 핵무기의 확산이 국제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는 세이건(Scott D. Sagan)이 대표적이다. 그는 신생핵보유국의 경우 과거 핵보유국과는 달리 내부의 군부조직이 편견과 엄격한 통제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군부민의 편협한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서 억지의 실패와 핵무기의 사용 빈도를 높이게 되고 결국 국제체제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것으로 주장한다(Sagan, 1994).

6) 이 부분에서 신현실주의에 분석가 일어난다. 만일 안정적 핵다극체제로 질서있게 이행된다 하더라도, 강대국들의 숫자는 그들의 파괴적 군사력과 협력하려는 의지의 본질보다 틀림없이 덜 중요하다. 그리고 세휴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중요한 변수라면, 스탠리 호프만(Stanley Hoffmann)이 전쟁 또는 평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성격이 주권국가의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한 것은 옳다(Mearsheimer, 1990, p. 12; Hoffmann, 1990, p. 192).

7) 월츠조차도 자유주의의 방향으로 가는 실수를 범한다. 균형잡히지 않은 미국의 힘은 탈냉전기의 걱정거리이지만, 그러나 평화가 보통 자유민주주의 사회들 사이에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외부적·내부적 이유로 환영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주장에는 어떤 진리가 있다고 주장한다.(Waltz, 1991, p 670).

군사동맹에 있어서 보다 큰 신축성을 갖는다(1964, p. 901). 그러나, 예컨대 강대국들 사이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만드는 규범을 제도화하는 것과 같이, 국가가 다른 분야에서 신축성 또는 기교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논의가 없었다. 신현실주의의 전체적 방향으로 인하여 단위에 의한 변화의 분석은 위축되게 된다. 신현실주의는, 소련과 같이 일반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이 어떻게 국제적 행위의 지배적 유형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지를 강조하며, 문민국가와 혁신국가들이 미래에 비슷한 운명에 종속되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Waltz, 1979, p. 128, p. 152). 월츠의 견해로는, 초강대국 간의 데땅뜨가 공동의 도덕적 틀에 의존한다면 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모겐소의 주장이, 국제관계의 주된 윤곽이 국가들의 국내적 특성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환원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모겐소의 부수적 실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의 국내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Waltz, 1979, p. 62)이 중요하다고 믿은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업적들에 대한 월츠 자신의 언급은, 신현실주의에게 더욱 곤란함을 제기하는 결론을 시사한다. 만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와의 관계에서 평화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없다면, 신현실주의의 단위와 체제 간의 구분과, 근본적인 국제적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 입장은 즉각적으로 공격받는다. 국제적 안정성은 강대국들의 숫자나 그들의 파괴역량의 성격보다는 그들이 채택한 국제관계의 원칙과 그들이 인정하는 도덕적 제약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I. 탈현실주의적 입장의 이론적 도전

1. 신현실주의의 타당성 감소 주장

가. 신칸트학파(Neo-Kantian school): 민주주의와 평화

신칸트학파의 주장은 단위의 속성이 자유민주주의로 수렴되면 무력보다는 합의에 의하여 국가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따라서 평화가 진작된다는 논지로서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의 이론적 구조를 닮아 있다. 특히 도일(Doyle, 1986)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국제체제를 개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월츠에게 있어서는 결국 환원론적 방식에 의한 문제해결 의도로 비쳐지고 따라서 이미 하찮은 주제가 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점이 월츠에 대한 비판가들의 저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1991)는 자유민주주의 산업국가들 간의 관계가 무력보다는 동의에 의존하게 되는 전지구적 변화의 흐름을 언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들은 독특한 평화지대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후쿠야마는 마이클 도일의 주장이 소련과 동구권을 변화시킨 민주화의 열망에 의하여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존 뮤엘러(John Mueller, 1989)는, 19세기 유럽에서 결투가 나쁜 평판을 얻게 되었듯이, 현대전쟁이 산업화된 세계에서는 점점 싫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레이(Ray, 1989)는, 도덕적 발달이 19세기에 노예제 폐지로 연결되었듯이, 오늘날의 도덕적 진보는 무력의 쇠퇴를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이 신칸트주의적 성향의 이론가들이 하나같이 자유민주주의 산업국가라는 국가의 속성이 평화정착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탈냉전 이후

힘을 얻고 있는 이들의 입장이 민족국가 내부의 문화적 변화가 이미 신현실주의 무정부 논리를 견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무정부는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옳은 것인가?

비록 신칸트학파의 주장이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산업화된 세계에서 고무적 발전이라는 데에 의미있는 합의가 존재한다. 분명 강대국들은 그 이전의 국가들에 비해서 정치적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덜한 것은 사실이다. 핵혁명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민족주의의 결정적 요체인 '대중군대'(mass-armies)에 대한 의존을 종식시켰다(Mearsheimer, 1990, p. 21). 그 결과 산업화된 사회에 있어서 더욱 평화적인 문화가 성착되어 갔다. 세계정치에서 영토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지만, 영토의 정복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과거의 가정에 사로잡힌 강대국은 없다(Gilpin, 1981, p. 138; Rosecrance, 1986). 로즈크랜스가 교역국가(trading states)의 발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의 진화에 분수령이 된다. 강대국들은 군사적 갈등을 평화적인 경제적 경쟁으로 대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국제적으로 분할된 경제적, 정치적 책임 안에서 특화된 역할을 더욱 수행하고 싶어 할 것이다(Rosecrance, 1986, p. 24, p. 101). 로버트 콕스(Robert Cox, 1989, pp. 827-8)는 다자주의 및 중간국가역할론의 전망이 미국의 패권쇠퇴와 함께 더 좋아졌으며 이는 양극체제 이후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나. 상호의존: 무정부 하의 협력가능성

이 부류의 시각은 국제적 상호의존이 주권국가에 미치는 충격과, 타국과 협력하고 국제기구 내에 확립된 규칙에 따르려는 주권국가의 의사에 관한 것이다. 로버트 코헨(Robert Keohane, 1989)은 국가가 합리적 이기주의자라는 신현실주의의 가정을 수용하지만 국가가 국제제도에의 가입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개념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게임이론적 수단을 사용한다.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구성원칙이 무정부일지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논의는 소위 신자유주의-제도학파[8]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 학파는 대부분 현실주의 학파에서 전제하는 기본가정을 수용하면서 국가간에 갈등을 회피하고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대체로 그들에 의하여 수용되고 있는 현실주의 가정들은 국가가 국제정치에 있어서 주된 행동단위라는 것(국가중심적 가정),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합리성 가정)을 수용하며, 또한 국제적 무정부가 국가의 동기 및 행동의 원칙을 제공한다는 것(국제무정부 가정) 등도 인정한다(Axelrod, 1984, p. 3; Axelrod and Keohane, 1985, p. 226; Lipson, p. 6; Stein, 1983, p. 116). 그러나 이들은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과 국제제도의 능력에 믿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국제제도는 국가들이 협력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따라서 국제협력도 비관적인 현실주의의 전망보다도 훨씬 긍정적이다(Keohane, 1984).[9]

이러한 논의는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국제무정부에서 국가행위의 합리성 가정에 의하여 강화된다. 이들에 의하면 국가는 복합적인 이익과 특히 '수인의 고민'(Prisoner's Dilemma)이라

8) 원래 신자유주의-제도학파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협력논쟁은 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상실된 이후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성과 협력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으나, 무정부하에서의 협력이라는 논리적 구조가 국제안보분야로 확대되어 일반이론화되었다.

9) 특히 코헨은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분석을 통하여 헤게모니나 갈등을 주제로 하는 현실주의의 비관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Keohane(1984), p. 84 참조.

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력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협력론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즉 국가가 '수인의 고민'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러한 게임이 반복된다면 조건부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10] 왜냐하면 국가가 계속적으로 협력과 배신을 통하여 상호작용하게 되면 상호협력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기제는, 액설로드(Robert Axelrod)의 표현을 빌리면, "미래의 그늘"(the shadow of the future)이다. 반복적인 '수인의 고민' 게임에 있어서 미래와 현재의 관계는 중요한데, 이는 두행위자가 다시 만난다는 데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현재의 선택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행위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xelrod, 1984, p. 12).

그러나 미래는 현재보다는 덜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이는 그 몫의 획득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그 몫에 대한 가치를 덜 인정하고, 또한 행위자가 다시 만나게 될 기회가 적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따라서 다음의 행동의 몫은 현재의 몫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절하되게 되는데, 이러한 절하율이 "미래의 그늘"을 반영하는 것이다(*Ibid.*, p. 13) 따라서 반복적인 '수인의 고민' 게임에 있어서 협력을 가능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미래의 행위를 현재의 선택과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절하율이 클수록 협력이 보장될 수 있다(*Ibid.*, pp. 126-132.).[11] 따라서 국제무정부와 혼합적 이익의 상황 하에서도 국가들간의 조건부협력은 상호적인 전략, 오랜동안의 시간, 상대방의 배신에 대한 검증과 응징의 비용 감소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용의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이들이 제시하는 것은 상대의 수의 제한과 국제적 제도이다. 상대방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중의 하나의 배신으로 나머지 전체가 처벌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나머지 당사자들도 배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수인의 고민' 전형의 논리와 다음 게임에서 이를 응징하는 데에는 배신당한 자들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어려움(Keohane, 1984, p.77; Axelrod and Keohane, 1985, pp. 234-238)이 있게 된다. 따라서 협력론자들에게 있어서 국제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국제제도는 검증비용을 감소시키고, 반복성을 보장하며, 배신에 대한 응징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12]

이러한 접근법과 영국의 합리주의는, 양자 모두가 무정부의 개념이 설명적 가치가 제한적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Keohane, 1990). 국제체제는 무정부적이지만 또한 규범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신현실주의는 과거의 국가에 대한 규범적 제약의 역할과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과소평가하였던 것이다.

다자적 형태의 전지구적 통치로 이행해 가는 더 많은 기회가 탈양극세계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국가로부터 전지구적 기구로의 권력 및 권위 이전이 앞에 놓인 유일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민족국가는 양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가 독립적 행동의 영역을 심각하리 만큼 감소시켰기 때문이며, 국가 내의 집단이 보다 많은 대표성과

---

10) 반복게임의 분석은 Robert Axelrod의 저서(1984)에 의하여 선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서의 기본적인 논리는 대부분의 협력론자들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그 결과는 *World Politics* 특집호인 vol. 38, no.1(1985)에 수록되어 있다.

11) 특히 미래의 그늘을 크게하는 것이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는 상호작용을 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하고, 또한 그 빈도가 잦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공식은 *ibid.*, p. 208 참조.

12) 특히 상호성에 있어서 국제제도는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준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Stein(1983), p. 123, Lipson(1984), p. 6, Keohane(1984), p. 97, p 246 참조.

자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아롱(Aron, 1968)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와 세계화는 나란히 진행되지만, 진전이 같지 않음으로써 인류가 분열되는 것이다. 급격한 양극화 소멸이 전후 세계정치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이지만, 국가사회주의 사회들의 붕괴는 베스트팔리아 체제(the Westphalian system)의 기초를 부식하는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변화, 즉 국가 내적인 반란과 세계화의 과정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다. 신현실주의와의 비교

이상에서 언급된 신칸트학파나 협력론의 시각들은 네가지 기본적 측면에서 신현실주의와 다르다. 첫째, 신현실주의는 여전히 전략적 요소가 강대국 관계의 형태에 일차적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전략적 관계는 변화되기 쉬우며, 화해는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에 반대되는 견해들은 권력의 재분배가 세계정치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변화라는 점을 부인하는데, 각자는 강대국관계의 평화가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지배적 논리라고 주장한다(Richardson, 1992, 1993). 둘째, 신현실주의와 그 비판자들은 세계정치에서 문화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이견을 보인다. 월츠는 반복적 유형의 체제이론은 신념이나 전통을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altz, 1979, pp. 81-2). 비판자들이 체제론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국가정책의 혁명을 지적하는데, 이는 곧 세계정치에서의 가치 변화(transformation of values)를 말한다(Morse, 1976). 셋째, 신현실주의가 분명 주권단위와, 국가가 이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복잡한 경제적·문화적 변화과정과 분리하여 국제체제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정치에서의 지배적인 힘에 대한 부적절한 지침이라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국제체제는 월츠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위의 성격에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는 세계정치에서 급격한 변화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 넷째, 신현실주의는 권력 및 안보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이상주의자들의 시각이 국제체제에 어떠한 인상도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탁월하다고 주장한다. 비판자들은 신현실주의가 널리 유력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에 너무 재빠르며, 현상유지의 정당화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개관된 접근법들은 오늘날의 전지구적 구조에 내재하는 대안적 역사발전의 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공히 규범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 탈현실주의적 입장의 이론적 구조

위에서 언급된 논쟁들이 국제관계이론의 미래 방향에 대하여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신현실주의에 대한 다음의 세가지 비판론들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첫째, 신현실주의는 단위와 체제 간의 관계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으며, 국가가 국제정치적 변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둘째, 국가들체제를, 그것이 근간을 두고 있는 문화적 실천으로부터 유리시킴으로써 신현실주의는 현재의 도덕적, 문화적 변화의 막대한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신현실주의는 그 규범적 시야를 너무 낮게 설정하였으며 비판적 접근법들이 국제관계학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절하한다.

가. 단위 및 체제의 문제

월츠는 현실주의자들이 구조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현실주의는

어떻게 구조적 제약이 국가로 하여금 기능적으로 같게 되도록 강요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현실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신현실주의는 어떤 '국제적 결과의 원인이 개별 단위 수준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Waltz, 1990, pp. 34-36). 세가지 이유가 단위수준의 현상을 진지하게 다루는 데에 있어서 즐겨 인용된다.

첫째, 단위수준의 특징분석은 '왜 서로 다른 단위들이 체제에서 유사한 위치에 있음에도 다르게 행위하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필수적이다(Waltz, 1979, p. 72). 둘째, 국가는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무력하지 않은 바, 인과관계의 흐름은 구조적 수준에서 단위로, 그리고 단위로부터 다시 체제로의 두가지 방식으로 움직이는 상호구성적이다. 셋째, '단위수준 요소와 체제수준 요소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비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단위수준의 분석은 필요하다(Waltz, 1979, p. 49).[13] 이러한 논제를 확장하여 월츠는, 서로 다른 시기에 있어서 단위와 체제의 상대적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 비록 미래에는 발전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론의 추구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따라서 가용한 가장 정교한 접근법이라면 단위로부터 분리하여 국제체제를 고찰해야 하고, 그 독특한 구조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어떻게 그 제약력이 국가들 간에 비슷한 행위를 만들어 내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월츠는, 단위가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체제이론은 단위의 국내적 성격을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비판자들 몇몇은 월츠가 단위와 체제가 관계되는 방식에 관하여 일관되고 변함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위와 체제의 관계 묘사는 분명히 신현실주의와 그 비판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마틴 홀리스와 스티브 스미스(Martin Hollis and Steve Smith, 1990)는, 월츠가 비판자들에게 한 주된 반론에서 그가 주장하는 체제결정론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월츠는 그의 답변에서 '구조의 형성 및 추방은 성공적으로 거부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필요한 만큼의 '기술과 결심'에 의하여 구조적 제약이 종종 극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14]

이러한 입장은 월츠가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허용했던 것보다 단위에게 어느 정도까지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그 해답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체제의 제약을 깨는 그 어떤 능력(Waltz, 1986, pp. 343-4)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한 월츠의 정의는 분명치는 않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으로부터 결과가 일탈되었을 경우, 즉 국제체제 만으로 설명이 안되는 경우, 단위수준의 과정이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그의 언급이 단서가 될 수 있다(Waltz, 1979, p. 71). 신현실주의자라면 그 능력을, 전략적 조건으로 인하여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상상 속의 안보 및 외교정책 수행으로 정의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월츠가 의도한 의미라면, 그의 입장은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가 출판된 이래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수준의 변화가 중요한 체제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고 한 월츠의 주장은 논의의 최종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결정적인 부분에서 논의를 끝내는 것이나 마찬

13) 단위가 양극세계보다 다극세계에서 더 영향력이 있다는 신현실주의의 견해는 이러한 요지에 맞는 좋은 예가 된다.

14) 월츠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장들은 그들의 악기가 지닌 한계를 초월하여 보다 적은 연주자들을 제약하는 체제의 제약을 깨버린다'(Waltz, 1986, pp. 343-4)

가지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월츠(Waltz, 1979, p. 62)는 국내정치적 사태발전을 '직접적인 국제적 관심사'로 전환시키는 데에 필요한 데땅뜨의 전제조건에 관한 모겐소의 개념을 비판하였다. 국제관계에 관한 체제적 설명은 '국가가 혁명적인가 아니면 합법적인가, 권위주의적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적인가, 이념적인가 아니면 실용적인가'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Ibid.*, p. 99). 그러나 단위수준의 현상을 무시하려는 결정은, 단위수준의 요소와 체제수준의 요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는 '이론적으로 재미있고 실제로 중요한 문제를 미결인 채로' 두고 있는(*Ibid.*, pp. 48-9) 다른 소견과 충돌된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갖는 긍정적인 국제적 효과에 관한 보다 최근의 월츠의 논평은, 단위수준 분석의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성취 기준'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가 군사적 용감성이 국가적 덕목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믿음을 부추키던 때보다, 현재가 더 높다는, 그의 이전 주장(Waltz, 1959, p. 137)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성취 기준에서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불가피하게 민족국가 내부에서 그리고 그들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사회적, 문화적 힘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월츠가 외교정책이론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국제정치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한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체제이론이 국가행위에 대한 구조적 제약의 충격을 설명하는 것이지 외교정책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월츠는 단위가 구조적 제약을 초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모겐소가 단위수준의 현상을 너무 심각하게 다루었으며 외교정책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했다고 혹평하였다. 월츠는 이론적으로 체제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만든 주요 움직임을 체제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체제에 깊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외교정책 분석이 부차적인 일일 것이며, 전후의 경우에는 환원론과 체제이론은 동등한 시위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정책적 함의가 이러한 대조적인 시각들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의 차이가 갖는 중요성은 막대하다.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이 의심스럽게 된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그러하다. 미어샤이머와 같은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적 안정을 만들어 내려는 오랜 투쟁이, 등장하고 있는 다극세계의 더욱 가혹한 조건 하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Mearsheimer, 1990, p. 45). 로즈크랜스, 후쿠야마, 뮤엘리, 콕스와 같은 비판자들은 신현실주의가 '국가목표와 가치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변화들'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Jervis, 1988, pp. 343-4). 신현실주의는 교역국가와 중위권국가들이 국제관계에서의 성취기준 향상을 위하여 취한 솔선수범을 잘못 판단한다. 물론 월츠는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이러한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한다. 국가 하위적 정체성과 초국가적 정체성에 보다 큰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치공동체를 손실하려는 노력이, 현재의 상황 하에서 성취기준을 높이는 데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변화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전략적 환경에 관한 기교보다 정치적 이념 및 문화에 관한 기교가 필요하다.

나. 구조와 변화의 문제

신현실주의가 단위와 체제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세력균형에 있어서의 변경이나 전체 체제의 구성원칙에 있어서의 변화와는 다른, 정치적 변화의 한 형태를 모호하게 만든다. 그 누락된 차원이 바로 문화적 변화인데, 이는 존 러기(John Ruggie)가

신현실주의에 관한 그의 비판논문에서 강조한 바 있다(Ruggie, 1983). 러기의 견해로는, 신현실주의는 중세적인 국제사회로부터 근대국가체제로의 이행을 고찰하지 못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유형의 국제적 무정부 사이의 이행인데, 거기서는 보다 넓은 기독교 사회의 구성원제가 주권 및 영토성이라는 분할적 원칙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변화한 것은 독립적 정치행위자들을 구성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법적·도덕적 권리 및 의무였다. 러기는 이러한 국제적 무정부 내의 변화를 분리성 원칙(the principles of separability)의 변형으로 묘사한다.

월츠가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고찰하지 않고 단지 국가이기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신현실주의 비판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공격한다. 리처드 애슐리와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는 신현실주의가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Ashley, 1984, pp. 240-241; Wendt, 1992).[15] 주된 논점은 국가의 자기중심주의가 무정부 사체에서 주어지기 보다는 획득되며, 국가 및 정치공동체에 관한 새로운 개념들이 가능하고, 무정부는 지속될 수 있지만, 국가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것이 구조적 제약의 영역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Linklater, 1990b, pp. 28-32).

국가들이 더 이상 영토정복을 경제발전에 중심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이전의 주장들(Knorr, 1973, p. 1962; Tucker, 1977, p. 28; Hanrieder, 1978, p. 1280)은, 이러한 국가의 구성과 재구성 개념의 가능성을 보다 밝게 한다. 근대초기의 유럽에서 폭력이 풍토병처럼 되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절대주의국가가 경제성장에 정복과 전쟁이 필요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영토팽창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제1차세계대전으로 이르는 긴장을 더욱 배가하였던 것이다(van Evera, 1985). 20세기에는, 전지구적인 통상 및 투자를 위하여 무력의 사용을 회피하는 교역국가의 발생이 목도된다. 절대주의국가와 교역국가는 모두 무정부적 체제에 속하지만 그들의 행위규범은 분명 같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무정부의 본질이 다르다. 신현실주의는 변화하는 국가구조 본질을 고찰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으며, 따라서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정체성과 사해동포적 도덕정서에 감응하기 쉬운 무정부체제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다. 신현실주의는 근대적인 국가들체제가, 종국에는 세국에 의하여 세력균형이 파괴될 때까지 세력균형의 축을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평화적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체제일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국가가 그 법적 또는 도덕적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구축하며 이러한 문화적 발명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은 놀랍게도 국가구조에 관한 사회학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구상된 사회학적 작업은 신현실주의와 상충되는 것이며, 구조주의와 불역사주의에 의하여 지연되게 되었다. 그 문제는 월츠의 중요한 불후의 저작 *Man, the State and War*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쟁의 세가지 이미지를 구분하고 그 원인을 인간의 본성, 국내체제의 유형 그리고 국제적 무정부에서 각각 찾고 있다. 국가를 외부세계와 분리하고 또 외부세계와 관계되도록 하는 법적·도덕적 권리 및 의무를 국가가 구축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 분석은 어디에도 없었다(Linklater, 1990a, 1992). 신현실주의는, 공동체의 구성과 계획적으로 배제된 측의 이익에 반응하는 잠재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체 개혁에 초점을 둔, 네 번째 이미지의 가능성을 무시한다(Linklater, 1990a).

---

15) 이러한 입장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범주에 포함되며, 탈근대 국제정치이론의 핵심적 이론으로 간주된다. 이에 관해서는 하영선(1992), 신욱희(1998) 참조.

다. 공동체와 정체성의 문제

1980년대 이래 신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은 인식론적 쟁점에 중심이 있었다. 리처드 애슐리(Richard Ashley, 1981)는, 조작과 통제의 정향을 가진 월츠의 기술적 현실주의(technical realism)와 외교적 이해와 합의의 정향을 가진 모겐소의 실용적 현실주의(practical realism)에 대한 비판이론적 대안을 옹호하기 위하여, 유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지식구성적 이익(knowledge-constitutive interests)의 3분법을 원용하였다. 뒤이어, 그는 신현실주의를 '현상유지의 옹호론'으로 기술[16]하였다(Ashley, 1984, p. 257). 신현실주의가 널리 퍼진 현실을 '자연스럽다'고 가정하면서, '통제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며, '권력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합리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애슐리는 주장하였다(*Ibid.*, p. 228).[17]

또한 콕스(Cox, 1981)는 강대국 관계의 관리에 관심을 둔 신현실주의 또는 문제해결이론과, 그와 달리 지구적 변화를 이해하고 증진하려는 성향을 가진 비판이론을 구분하였다. 콕스에 의하면, 신현실주의는 현존하는 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체제를 보다 원활히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를 묻는 반면, 비판이론은 어떻게 그 체제가 발전되어 왔으며, 변화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했다고 한다. 신현실주의가 강자의 마음에 든다고 생각되는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반면, 비판이론은 한계적이며 배제된 존재들의 이익을 만족시키도록 질서가 변형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있어서 세가지 상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신현실주의가 단순히 통제범위의 확대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은 불분명하거나 또는 오류이다. 월츠는, 국가가 타국이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력을 모음으로써 자국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둘째, 신현실주의는 사활적 안보이익 및 달성가능한 국가목표의 침착한 평가 대신 모호한 이념적 목표 추구를 지향하는 외교정책에 이의를 제기한다. 신현실주의는, 이러한 역할을 할 때, 협력 및 공동체의 발전을 방해하는 이념적 또는 외국혐오적 외교정책을 심하게 공격한다. 셋째, 그러나 신현실주의는 국가들 및 그 국민들 간의 국제적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 어떤 중요한 긍정적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애슐리(Ashley, 1981)에 의하면 신현실주의는, 외교적 합의와 이해를 증진하는 실용적 이익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조작과 통제라는 기술적 이익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다. 실용적 이익에는 한스 모겐소와 같은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의 저술이 좋은 예가 된다. 요컨대 신현실주의는 권력과 통제의 계산을 초월하는 형태의 국제을 상상하지 못한다. 새로운 지구적 규범을 창조하려는 국가들의 실천적 노력이나, 새로운 정치공동체 및 외교정책의 개념을 만들어내려는 이론적 시도에 중요성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어샤이머와 같은

16) 이러한 논점은 실증주의에 대한 애슐리의 비판이 된다. 이는 Ashley(1984), pp. 248-254 참조.

17) 애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합리성(rationality)이다. 그는 이를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과 합리성 그 자체(rationality proper)로 구분하는 바, 기술적 합리성이란 합리성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도구적 합리성으로서 인간의 지식, 기량, 능력이 문제의 해결, 통제, 지배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며, 이를 현상유지적인 실증주의의 속성으로 본다. 즉 인간의 본성에 있는 지식 및 기량을 발전시키는 능력은 인간들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와 자연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 사용되지만 기술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인간 자체를 포함하여 환경을 객체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고와 상호작용이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사고와 상호작용이 기술적 능력이라는 좁은 측면에 한정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적 측면이 우월해지면 근대의 안보문제, 즉 안보딜레마가 생겨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Ashley(1980), pp. xi-xii, pp. 205-228, pp. 294-307 참조.

신현실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역사해석 지지자들에게 앞에 놓인 위험을 경고하고, 결국 세력균형이 가능한 전부라고 주장하며, 본의 아니게 현상유지에 정당성을 부여한다(Cox, 1981, p. 132).

이론과 실천에서의 최근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른 분석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국제관계이론이 재발과 반복을 설명해야 한다는 신현실주의자들의 믿음은, 체제의 지배적 논리에 반하는 막대한 추세의 분석을 지지하는 비판이론가들에 의하여 거부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산업화된 세계에서의 국가구조변화 및 강대국관계의 장기적 평화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 의하여 강화된다.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의 이러한 발전은, 양극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문제 경고 이상의 것을 신현실주의가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탈현실주의 입장들은 국제관계학를 연구하는 중심적 목적 중의 하나가 한계적이고 배제된 존재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는 가정을 공유한다. 말하자면 아폴로에게 죽은 아르케미스가 홀연히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탈근대이론 그리고 페미니즘은, 고전적 국가주권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정치공동체를 주장한다. 세가지 시각 모두는, 국내정치가 담론과 대화에 의하여 지배될 수 있지만 국제정치는 권력과 무력의 주변에서 맴돌도록 운명지워져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세가지 모두는 신현실주의보다 훨씬 더, 세계정치에 있어서 유망한 추세를 찾아내고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한다.

비판이론적 접근법은 내부자의 이익이 당연히 국외자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이는, 그들이 자국민에 대한 의무와 인류에 대한 의무가 갈등하는 경우 전자가 불과기하게 우선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정치공동체를 국외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 규범을 보편화하는 것, 사해동포적 윤리를 실현하는 것이 강조된다(Linklater, 1990b). 이러한 신현실주의에 대한 사해동포적 대응은 탈근대이론가들에 의하여 도전받는데, 이들은 국가주권원칙과 강권정치의식을 비판하는 데에 똑같이 열심이지만, 그러나 사해동포적 시각이 문화적 차이에 민감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Walker, 1988, 1993). 비슷한 주제가 페미니즘 사상에 나타났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정치세계가 여성들의 삶에서 자주 더 많이 언명되는 갈등 감소의 적성을 이용함으로써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현실주의가 세계정치에 관한 성적으로 편향된(gendered) 해석을 내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모두를 위하여 진실한 도덕적 원칙에 도달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무시하는 사해동포적 윤리를 의심한다. 그들의 주장은, 사해동포적 사상이 가정 내에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지배했던 특정인에 대한 보살핌과 책임의 윤리를 빈번히 경시한다는 것이다(O'Neil, 1989, p. 443; Grant and Newland, 1991).

이 모든 시각들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국외자에게 덜 배타적이고 그들의 이익과 욕구에 대하여 보다 민감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공동체를 주장한다. 비판이론은 국외자들의 이익을 보다 더 고려하는 새로운 정치구조를 주장하고, 탈근대주의는 소수집단과 궁핍한 집단을 포함하여 차이가 나는 사람들의 이익을 강조하며, 페미니스트들은 공공영역으로부터의 여성 배제가 중요한 윤리적 숙련기술 및 징향이 사적 영역에 한정되어 왔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법들은 보완적이다.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부인하는 사해동포적 윤리는, 탈근대이론가들이 주장하듯이, 매력이 없지만, 그러나 종속된 집단을 제약하고 국외자들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특별한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도 그러하다(O'Neil, 1989). 진정한 도전은, 국외집단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의 도덕적 편협성과 내부의 소수집단에 대한 배타적 처우 모두를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공동체에서 보편성과 차이점 간의 정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관계학의 공동체 문제로 기술되어 온 것은(Linklater, 1990c) 탈양극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제기되었으나, 신현실주의가 거의 주목하지 않은, 상기적 문제이다.

IV. 탈현실주의적 입장의 이론적 한계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탈현실주의적 입장은 그 이론적 계보가 대단히 다양하다. 지식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주류이론의 비어가는 자리를 여러부류의 이론들이 메우고자 경쟁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탈현실주의적 입장들의 이론적 타당성이 부분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아직도 국제관계의 현실을 탈현실주의입장의 이론들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신칸트학파적 논의들은 단위의 성격 변화가 국제체제의 성격과 그 안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데, 이는 탈냉전 이후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와 그 정치적 표현인 자유민주주의가 보편질서로 자리잡음으로써 세를 얻어가고 있는 이론적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논거로 서구 선진산업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간의 전쟁부재를 들고 있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다. 오랜 평화기간 동안 서방국가들간의 전쟁을 방지해 준 것은 적대적 이데올로기 조직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은 사소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덮어두기에 충분했던 것이다.상호의존의 경우도 그것이 민감성과 취약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국가들간의 우호증진과 평화진작에 기여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히 상호의존과 국제협력의 연관성을 논하는 협력론자들에게 있어서나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나 국제적 무정부는 국가간 공동의 정부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같으나, 전자의 경우는 국제무정부가 약속을 강제하는 중앙기구의 부재를 의미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국가가 파괴되거나 노예화되는 무력의 사용이나 무력의 위협을 방지하는 중앙권위의 부재로 파악한다. 이러한 강제의 부재와 보호의 부재 간에는 논리적으로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보호의 부재 하에서는 전쟁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무정부와 전쟁의 위험은 국가로 하여금 공포와 불신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Waltz, 1959, p. 232; Waltz, 1979. p. 113; Gilpin, 1985, pp. 304-305).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는 국가권력의 핵심적인 이익이 될 수 없으며, '생존'이 핵심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즉 생존은 모든 가치의 근간이 되는 바, 권력을 포함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도 생존이 보장될 때에만 추구될 수 있는 것이며, 의미를 가질 수 있다(Waltz, 1979, pp. 91-92) 따라서 국제관계는 '미래의 그늘'로 일컬어지는 장기적 이익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늘'[18]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체계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위상(position)이다. 국가의 위상은 타국과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더욱이 전쟁의 그늘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가의 이익이 생존으로 귀결되는 만큼, 국가는 그 능력의 상대적 평가에 민감할

18) 이는 레이몽 아롱의 용어를 빌린 것이다. Aron(1966), p. 6 참조.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절대적 이익이 아니라 상대적 이익이며,[19] 타국이 상대적인 능력을 증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다(Carr, 1964, p. 111; Waltz, 1979, p. 126; Gilpin, 1981, pp. 87-8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협력논자들이 수용한 국가에 대한 가정, 즉 국가중심적 가정과 합리성 가정은 그 해석에 있어서 현실주의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 국가로 한정된 협력주의자들의 개념은 인식론적으로 원자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반면 현실주의에서는 관계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맥락에서 국가의 위상성(positionality)은 국가의 협력의지를 제약하는 것이다(Grieco, 1988, p. 500).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군사안보적 차원에서는 사활적 이익과 관련되게 되며, 그 경우 협력의 가능성은 대단히 협소해진다. 최근에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분쟁에서 나타나는 인권유린의 상황과 신국제주의(neo-internationalism)의 명분 속에서 여전히 작열하고 있는 국가이기주의의 극명한 대비는 신현실주의의 분석과 설명이 여전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현실주의의 구조론적 입장은 단위의 변화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론적 입장에 서있지만, 단위와 구조(체제)의 상호구성적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양극체제에서 일극다체 또는 단다극체제로 변화하는 경우 월츠가 단서조항으로 달아놓은 단위에 대한 부가적 의미는 부각될 것이다. 또한 월츠가 분석했던 시대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츠의 이론은 분명 국제체제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러기의 비판(Ruggie, 1983)은 옳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변화"가 개재되는 경우 신현실주의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월츠가 분석하려 했던 세계가 20세기 양극화된 세계였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 구조의 변화를 배제했던 점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고유한 특질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현실주의의 인식론은 근대에 머물고 있다. 근대는 능률 숭배시대이며 여기서 어두운 것, 약한 것은 도태되어 그늘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비판이론, 페미니즘, 공동체론 등은 신현실주의의 실증주의, 남성주의, 국가주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적 성향이 있다고 공격하는 사조들이다. 이러한 조류의 이론들은 비록 인간이 국제관계에 대한 사유의 틀을 넓혔을지라도 근대의 국제정치현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신현실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근대의 효용이 끝났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조의 비판 논거는 그 차원이 맞지 않는다는 약점을 면키 어렵다고 하겠다. 이 경우 월츠의 신현실주의의 보편적 타당성도 훼손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월츠의 이론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 이론적 효용이 있다고 주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19) 상대적 이익에 대한 강박관념은 국가의 성취능력과도 관계가 있다. 즉 국가의 성취도는 타국의 성취도과의 비교에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이 어떠한 비율로 배분되는가이다. "이익의 배분이 2:1로 되는 경우, (2를 배분받은) 한국가는 그 불균형한 이익을 타국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는 그를 파괴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쓸 수도 있다."(Waltz, 1979, p. 105).

V. 결 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신현실주의라는 국제관계학의 주류이론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되는 이론적 도전의 개보론적 맥락과 이론의 인식론적 구조를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들이 갖는 국제관계이론으로서의 가치와 또한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입장과의 비교론적 의미, 그리고 그 이론들의 한계에 관한 것들이었다. 여기서 우선 신현실주의이론의 골격, 즉 단위와 구조를 분리하여 구조론적인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분석하며, 특히 대립적인 양극체제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몇가지 논점들, 즉 단위의 체제제약성, 체제의 변화 가능성, 새로운 단위와 그에 따른 정체성 논의를 신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신칸트주의적 관점, 신자유주의적 제도론의 관점, 비판이론적 관점, 페미니즘적 관점, 그리고 공동체론적 관점 들의 경우 신현실주의의 기본적 가정, 즉 구조로부터 제약을 받는 단위(국가)의 이기적 행위동기라는 국제관계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칸트주의의 민주주의와 국제평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적 정치체제인 사회주의 몰락 이후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종식된 이후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의 역사는 불과 십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가디스의 경우는 소위 '오랜 평화'를 냉전이라는 양극체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나, 도일, 후쿠야마, 뮤엘러 등의 주장은 역사적 사례를 방증자료로 제시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비판이론, 페미니즘, 공동체론 등에서 제기되는 이론적 주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국가이기주의가 극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즉 신국제주의가 보스니아와 동티모르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보편적 도덕원칙에 충실하여 주권의 원칙을 넘어서려는 여러 방면의 시도들이 좌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현실주의가 던지는 영원한 명제의 구성요소인 '국제무정부'와 '주권'이 포기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를 근대를 벗어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경우, 논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20]

20) 탈근대 전략의 분석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논의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영호(1997).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비판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37/2, pp. 3-23.

신욱희(1998).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한계와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32/2, pp. 147-168.

하영선(1992). "탈근대 국제정치이론."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pp. 137-155.

Aron, Raymond(1966). *Peace and War*. New York: Doubleday.

------(1968). *Progress and Disillusion: The Dialectics of Modern Society*. London: Harmondsworth.

Ashley, Richard K.(1980).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and Peace: The Sino-Soviet-American Triangle and the Modern Security Problematique*. New York: Michols.

----------(1981). "Political Realism and Human Interes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5, pp. 204-36.

----------(1984). "The Poverty of Neo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 pp. 225-86.

Axelrod, Robert(1984).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

Axelrod, Robert and Robert Keohane(1985).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World Politics*, 38, pp. 226-254.

Carr, Edward H.(1964).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Cox, Robert W.(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 pp. 126-55.

----------(1989). "Middlepowermanship, Japan and the New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44, pp. 823-62.

Doyle, Michael(198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pp. 1151-69.

Fukuyama, Francis(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London: Hamish Hamilton.

Gilpin, Robert(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The Richness of the Tradition of Political 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 pp. 287-304.

Goldgeiger, J. and M. McFaul(1992). "A Tale of Two Worlds: Core and Periphery in the Post-Cold War Era."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pp. 467-91.

Grant, R. and K. Newland(eds.)(1991).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Grieco, Joseph M.(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 pp. 485-507.

Hanrieder, Wolfram(1978). "Dissolving International Politics: Reflections on the Nation-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4, pp. 1276-1288.

Herz, John N.(1950).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2/2, pp. 157-180.

Hoffman, Stanley(1990). "Back to the Future, Part II: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ost-Cold War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15, pp. 191-1.

Hollis, Martin and Steve Smith(1990).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Jervis, Robert(1988). "Realism, Game Theory and Cooperation." *World Politics*, 40, pp. 317-49.

Keohane, Robert O.(1989).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0). "Back to the Future, Part II: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ost-Cold War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15, pp. 192-4.

Knorr, Klaus(1973). *Power and Wealth*. London: Macmillan.

Linklater, Arthur(1990a). *Beyond Realism and Marxism: Cr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1990b). *Men and Citizen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1990c). "The Problem of Commu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lternatives*, 15, pp. 135-153.

----------(1992). "What Is A Good International Citizen?" In P. Keal(ed.), *Ethics and Foreign Policy*. Canberra: Allen & Unwin, pp. 21-43.

Lipson, Charles(198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37/1, pp. 1-23.

Little, Richard(1985). "Structuralism and Neo-Realism." In M. Light and A. R. J. Groom(eds.), *International Relations: A Handbook of Current Theory*. London: Frances Pinter, pp. 74-89.

Mearsheimer, John(1990).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pp. 5-56.

Morse, Edward. L.(1976). *Modernisation and the Transforma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Free Press.

Mueller, John(1989). *Retreat from Doomsday: the Obsolescence of Major War*. New York: Basic Books.

O'Neill O.(1989). "Justice, Gender and International Boundar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 pp. 439-59.

Ray, J. L.(1989). "The Abolition of Slavery and the End of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3, pp. 405-39.

Richardson, J. L.(1993). "The End of Geopolitics?" In J. L. Richardson and R. Leaver(eds.), *Charting the Post-Cold War Order*. Colorado: Westview Press.

Rosecrance, Richard(1986).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asic Books.

----------(1992). "A New Concert of Powers." *Foreign Affairs*, 71/2, pp. 64-82.

Ruggie, John(1993).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the World Polity: Toward a Neorealist Synthesis." *World Politics*, 35, pp. 261-85.

Sagan, Scott D.(1994). "The Perils of Proliferation: Organization Theory, Deterrence Theory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Security*, 18/4, pp. 66-107.

Stein, Arthur(1983).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Regimes in an Anarchic World," in Stephen Krasner(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15-140.

Tucker, Robert W.(1977). *The Inequality of Nations*. London: Robertson.

Van Evera, S.(1985). "Why Did Cooperation Fail in 1914?" *World Politics*, 38, pp. 80-117.

Walker, R. B. J.(1988). *One World, Many Worlds: Struggles for a Just World Peace*.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1993). *Inside/Outside: International Relations as Pol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tz, Kenneth(1959). *Man, the State and War*.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93, pp. 881-909.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ss.:Addison-Wesley.

-------(1981).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no. 171.

-------(1986). "Reflections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 Response to My Critics." In R. O. Keohane(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322-45.

-------(1988). "The Origin of War in Neorealist Theory."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8, pp. 615-28.

-------(1990). "Realist Thought and Neorealist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4, pp. 21-37.

-------(1991). "America as a Model for the World?: A Foreign Policy Perspective."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4, 667-70.

Wendt, Alexander(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pp. 391-425.